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결과 —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림**

6/ 23 월요일

아침의 누림

롬 3:24, 26

24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26 지금 이때에 그분의 의를 나타내셔서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행 10:43 모든 신언자도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그분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사 61:10 내가 여호와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분께서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겹옷을 둘러 주신 까닭이니 나는 마치 제사장의 머리 장식을 한 신랑 같고 제 보석으로 단장한 신부 같아라.

눅 15:22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노예들에게 ‘어서 그 제일 좋은 겹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렘 23:6 그의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주하며 그가 ‘여호와 우리의 의’라 불리리니 이것이 그의 이름이라.

속 3:4 그분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그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러시고 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서 네 죄악을 없애 버리고,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겠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의 표준에 따라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판결이다. 표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이지 우리의 의가 아니다. ... 하나님의 의는 얼마나 높은가? 그것은 무한대이다! 여러분은 자신의 의에 따라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 곧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와 친구에게 의로우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지 못한다. 여러분은 자신의 의의 표준에 따라 스스로를 의롭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표준에 따라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게 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따라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의 의의 표준에 따라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수 있는가? 의롭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는 의롭게 된다. 그런 구속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구속은 의롭게 됨의 근거이다.(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5, 80-8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롬 3:22 각주 1 참조)이라는 말을 아주 어렵게 여긴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을 가리키며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진정한 믿음이란 주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시다 (히 12:2). ...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났다. 우리는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분을 믿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이다. 자신은 믿을 수 없다고 결코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한다면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혼자서 믿으려고 노력하지 말라. 노력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더 없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렇게 말하라.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 당신은 너무나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즉시 믿음을 가질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분을 믿으며, 이 믿음에서 나와 이 믿음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의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계시된다.

우리의 체험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의로우시다고 인정했다(롬 3:4). ... 우리는 거역적이었으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반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의롭다면 왜 이 지구상에 빈곤한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면 왜 나라 간에 정의가 없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지만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 참으시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확신시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행하셨다. 누가 누구를 먼저 의롭다고 했는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의로우시다고 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의로움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의로우시다고 했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죄가 많고 더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거저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롬 3:24, 26).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완전한 구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공정하게 되시기 위해 우리를 의롭다 하셔야 한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분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롭다 하심과 대조된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면 우리가 일해야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데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 의롭게 되는 것은 그분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의에 묶이시어 우리를 의롭다 하셔야 한다.(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5, 87-88, 91-9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5

6/24 화요일

아침의 누림

롬 5:18, 21

18 그러므로 한 범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같이, 의로운 한 행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의롭게 되었습니다.

21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을 한 것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롬 5:6-10

6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그리스도는 정해진 때가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7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8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9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10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생명을 얻도록 의롭게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의 결과이다. 로마서 5 장 21 절에서는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리어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말한다. 로마서 5 장 18 절과 21 절은 생명이 의의 결과로 온다는 것을 보여 준다(참조 롬 8:10).(롬 5:18 각주 1)

생명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이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생명에 속한’ 것이다. 의롭게 되는 것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생명을 위한 것이다. 의롭게 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이르고, 그 표준과 일치되며, 그 결과 하나님은 이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하실 수 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외적 위치를 바꾸고, 생명은 우리의 내적 기질을 바꾼다. 생명을 얻도록 의롭게 되는 것은 생명이 로마서 5 장의 초점이라는 것과 생명의 유기적인 연결이 의롭게 된 결과라는 것을 가리킨다.(롬 5:18 각주 2)

오늘의 읽을 말씀

로마서 5 장 1 절부터 11 절까지에서 바울은 여섯 개의 두드러진 단어인 ‘사랑’, ‘은혜’, ‘화평’, ‘소망’, ‘생명’, ‘영광’을 언급한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다(롬 5:5).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왔다(5:2).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린다(5:1). 이어서 우리는 소망 때문에 자랑하고 크게 기뻐하며 영광스러워한다(5:2). 10 절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5:2). 이 여섯 항목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결과의 일부이다. ... 이 모든 것을 위해 여러분에게는 의롭다 하심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결과로서 우리의 몫이 된다.

이 여섯 개의 중요한 단어와 함께 우리에게 놀라운 세 위격이 있다. (‘위격’이라는 용어는 삼일성에 대한 가르침에서 부정확하게 이해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용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격과 관련하여 사용할 더 적합한 인간의 언어가 없다.) 로마서 5 장 1 절부터 11 절까지에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세 위격을 본다. 5 절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셨다고 말하면서 성령을 언급한다. 이어서 6 절은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11 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한다고 말한다. ...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림이시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자랑하며 크게 즐거워하고 영광스러워 한다. 이렇게 로마서 5 장은 여섯 가지 놀라운 일과 놀라운 세 위격을 제시한다. 우리에게는 사랑, 은혜, 화평, 소망, 생명,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결과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신다.

본래 우리는 죄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였다.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죄인들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분의 원수들인 우리를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롬 5:1, 10-11). 이것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이루어졌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과 화목하게 하심을 얻었다. 이로써 길이 열렸고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도록 은혜의 영역으로 안내되었다.

은혜의 영역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롬 5:5). ...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는 격려와 확증이 필요할 때가 많다. 고난의 시기를 통과할 때 우리에게는 의문과 의심이 생길 수 있다. 아마 여러분은 “왜 나의 그리스도인 생활에는 이리도 많은 역경이 있을까? 왜

이렇게 많은 시련과 시험이 있을까?”라고 말할지 모른다. ... 비록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가 처음으로 주 예수님을 부른 그 날부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확증하시며 보장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왜 지금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아버지, 제가 통과했던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은 영원의 문에 들어설 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의 여정 가운데 저에게 닥쳤던 고난과 시련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키시려고 그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9, 141-14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1

6/25 수요일

아침의 누림

롬 5:5, 1-2

5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립니다.

2 우리는 또한 그분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자랑을 합니다.

요 14:6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실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유 20-21

20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2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요일 4:8, 16

8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16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딤후 1:6-7

6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일깨워 줍니다. 나의 안수를 통하여 그대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7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딤후 4: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다! 비록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가난하고, 억압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원수들이었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를 흘리셨다. 이 어떠한 사랑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친아들을 주셨다면, 그분은 우리를 조금도 해롭게 하지 않으실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진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 선택은 그분께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선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이 우리의 몫이 될 것이다.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마련해 놓으셨다. 우리는 다만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다만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원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분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을 때,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할 것이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9, 143-14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로마서 5 장 2 절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으며”라고 말한다. 은혜는 우리가 서 있는 영역이다. 우리는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한다. 여러분이 어디에 서야 하는지 나에게 묻지 말라. 여러분은 은혜 안에 서야 한다.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났다고 느낄 때마다, 여러분은 즉시 은혜로 돌아와야 한다. 여러분이 아내와 다투려고 하는 순간,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났다고 느낀다면 다투려던 것을 멈추고 은혜의 영역으로 돌아와 거기에 서라.

우리는 죄 있는 어떤 일을 해야만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장소에 너무 오래 있기만 해도 우리는 자신이 은혜의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겨 갔다고 느낄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은혜의 영역으로 다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는 은혜의 영역에 처음 들어갔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은혜의 영역으로 돌아온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은혜의 영역에 들어갔다. 다만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피를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은혜 밖에 있다고 느낄 때마다 반드시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보배로운 피로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반복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즉시 은혜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은혜의 영역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린다(롬 5:1).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린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린다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여정에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먼저 문으로 들어간 후 길을 걸어간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광대한 누림이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고 입구를 제공한다. 일단 의롭게

됨의 문을 통과하면 우리는 화평의 길, 곧 평안의 길을 가야 한다. 죄인에게에는 화평이 없다. 로마서 3 장 17 절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평안의 길을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평안의 길을 걷고 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안에 평안의 느낌이 없다면, 우리는 멈추어야 한다. 언제나 평안을 따르라. 누가복음 7 장 50 절에서 주 예수님은 죄 많은 여인에게,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다. ...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평안의 길을 취해야 한다. 평안이 없을 때에는 가지 말라. 무엇을 하든지 평안 안에서 하라. 평안이 없다면 행동하지 말라. 은혜는 우리가 설 곳이며, 평안은 우리가 걸을 길이다. 어떤 곳에 머물 때 은혜가 없다면 그곳에 머물지 말라.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평안이 없다면 가지 말라. 은혜 안에 서고, 평안 안에서 행하라.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9, 144-14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9

6/26 목요일

아침의 누림

롬 5:3-4, 11

3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자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4 인내는 단련을, 단련은 소망을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11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고후 12:7-9

7 또한 내가 받은 계시들이 엄청나서 내가 너무 높아질까 봐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전달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를 처서 내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8 나는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도록 해 달라고, 이 일을 두고 주님께 세 번 간청하였습니다.

9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롬 8:28-29

28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은혜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롬 5:11). ‘자랑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곧 ‘자랑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의 ‘크게 기뻐하다’, ‘영광스러워하다’이다. ... 은혜의 영역 안에 서서 평안의 길을 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고 크게 기뻐하며 영광스러워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타고난 존재는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환난과 고난을 가져오신다. 이것은 로마서 8 장 28 절과 29 절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다. 이 절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말한다. 따라서 환난과 고난은 우리의 변화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모두 평안과 은혜와 영광은 귀히 여기지만, 환난은 좋아하지 않는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9, 146-14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환난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포함한 은혜의 육체 되심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육체가 되신 것과 유사하다. 그분은 겉보기에 단지 예수라는 사람이셨지만 사실상 하나님이셨다. 우리의 환경도 겉보기에는 환난이지만 사실상 은혜이다. ... 로마서 5 장에 있는 여섯 항목인 사랑, 은혜, 화평, 소망, 생명, 영광과 함께 신격의 세 위격은 모두 환난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든다. 그럼에도 환난은 바로 은혜의 방문이다.

우리가 은혜만 귀하게 여기고 환난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환난을 거절하는 것은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육체가 되셨는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육체 되심은 그분의 은혜로운 방문이었다. 분명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러한 방문을 사랑한다. 우리가 그분의 방문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육체 되심을 사랑해야 한다. 이는 은혜와 환난에

관해서도 동일하다. 환난은 우리를 방문하는 은혜의 육체 되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지만, 또한 은혜의 달콤한 방문이자 은혜의 육체 되심인 환난에 입 맞추어야 한다.

십자가는 고난이자 환난이므로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싫어한다. 그러나 귀용 부인은 십자가가 자기에게 하나님을 모셔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에 입 맞추고 십자가가 더 많이 오기를 기다렸다. ... 그녀는 십자가를 환영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십자가가 있을 때 하나님도 그녀에게 계셨기 때문이다. 환난은 십자가이고, 은혜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우리의 몫이신 하나님이다. 이 은혜는 주로 환난이라는 형태로 우리를 방문한다.

환난의 체험은 인내를 낳는다(롬 5:3). 인내는 단지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다. 인내는 참는 것에 고난이 더해져 나온 산물이다. 우리 중 인내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인내는 환난을 겪음으로써 산출된다. 우리는 생활의 작은 일들에서도 이 인내를 체험할 수 있다. ... 한 가지 사소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것은 사람들이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이다. 그런 늑장은 나를 괴롭게 하지만 인내심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9, 146-148 쪽)

구속받은 후 우리는 생명에 속한 오랜 과정에 놓인다. 이 과정 안에 있는 것이 때로 편안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과정을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두 알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어느 지방에 있는 교회와 함께 모여야 할지와 그 교회에서 어떤 형제들이 인도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신다.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아내나 남편이 최상의 배우자인지와 우리에게 몇 명의 자녀가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신다. 더욱이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직업과 어떤 고용주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다. 그분은 이 생명의 과정을 수행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생명 안의 과정은 로마서 8 장 28 절에 암시되어 있는데, 이 절은 이렇게 말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이 절에서 언급된 ‘모든 것’은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사물을 포함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1 년, 3 권,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고 그 영을 따라 행함, 4 장, 5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9

6/27 금요일

아침의 누림

살전 2:4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복음을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벧전 1:7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은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고 마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배로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빌 2:19-22

19 나는 주 예수님 안에서 디모데를 속히 여러분에게 보내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정을 알게 되어 나도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20 나와 같은 혼이 되어 여러분의 사정을 진심으로 돌볼 사람이 디모데 외에는 나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21 왜냐하면 모두가 자신의 일만 관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은 관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2 그러나 여러분은 디모데의 입증된 성품을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는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섬겼습니다.

살전 2:4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복음을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계 3:18 그래서 나는 너에게 권면한다. 불에 제련한 금을 나에게서 사서 풍성하게 되도록 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도록 하며,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서 보도록 하여라.

계 1:20 네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등잔대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전달자이고,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임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시험을 통과하여 그분께 인정을 받는 것에 근거한다. 사도들은 먼저 하나님께 시험받고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복음을 위임받았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것, 곧 그들의 복음 전파는 자신들에게 속한 것이거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것이었다. (살전 2:4 각주 1)

시련은 인정받기 위한 시험이다.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시험, 곧 믿음의 시련이다. ... 물론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합당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점은 믿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한 시련으로 믿음을 시험하는 데 있다. (벧전 1:7 각주 1)

오늘의 읽을 말씀

인내는 단련을 낳는다(롬 5:4). 단련은 환난과 시험을 견디고 체험한 결과로 인정된 자질이다. ... 종종 젊은 형제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인정할 만한 자질을 산출하는 인내가 필요하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인정받을 만한 자질을 가져온다. 어떤 번역본은 이 단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체험으로 번역한다. 그것도 옳은 번역이다. 왜냐하면 단련은 체험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체험 그 자체가 아니라 고난의 체험을 통해 얻은 속성 혹은 미덕이다.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인내를 얻게 되고, 그만큼 더 단련이라는 미덕이 산출된다. 단련은 우리가 나면서부터 갖는 타고난 속성이 아니다.

제련되지 않은 금에 관해 생각해 보자. 그것은 진짜 금이기는 하지만, 자연 상태 그대로이고 불품이 없다. 그것은 제련하는 불이 필요하다. 그 금은 불을 많이 거칠수록 인정받을 수 있는 품질의 금이 될 것이다. ... 많은 청년이 제련되지 않은 금과 같을지도 모른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광택을 내거나 도료를 칠하는 것이 아니라 태우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성도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생명과 빛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주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단련이 부족하다. 한 면에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능력을 발휘할 지 모르지만, 다른

면에서는 제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달콤하게 하거나 편안하게 하는 미덕이 결핍되어 있다. 그들은 인정을 받기보다 오히려 외면을 당할지도 모른다. ... 우리에게 단련이라는 미덕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주님, 제게 단련이라는 미덕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님은 “너는 정말로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이냐?”라고 물으실 것이다. 여러분이 진지하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단련을 낳는 환경을 일으키실 것이다. 예를 들어, 주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아내, 곧 여러분 안에 이런 자질을 산출하기에 가장 유용한 아내를 주실 것이다. 대부분의 아내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단련을 산출하는 일을 하시도록 돕는 탁월한 조력자들이 다. 주님의 종들 대부분은 그런 아내가 필요하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돕는다. 아내들의 기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 안에 단련을 산출하시는 데 도움을 준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진 분이시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자신이 부름받았을 뿐 아니라 사로잡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야 할 뿐, 다른 선택권이 없다. ... 나는 주님의 노예가 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들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단련이 부족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괴롭히고 우리를 손상한다. 또한 성도들과 하나님의 가족을 곤란하게 한다. 우리는 한 면으로는 성도들을 돕지만, 또 한 면으로는 해를 주기도 한다. 우리가 받은 빛과 은사로 그들을 돕지만, 단련의 부족으로 인해 그들을 해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내에서 나오는 단련이

필요하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9, 148-15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9

6/28 토요일

아침의 누림

벤전 5:10-11 (10)

10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직접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터를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11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후 4:13-18 (17)

13 또한 성경에 “나는 믿었기에 말하였다네.”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졌으므로 우리 역시 믿고 말합니다.

14 이것은 주 예수님을 살리신 분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분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15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 많은 사람을 통하여 풍성해진 은혜로 감사가 넘쳐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16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걸사람은 썩어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7 우리가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 냅니다.

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 장 10 절에서 ‘모든 은혜’란 신성한 생명의 여러 방면의 넘치는 공급의 풍성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 풍성은 우리 위에서 또 우리 안에서 여러 단계의 신성한 운행으로 우리에게 공급된다. 초기 단계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며, 완성 단계는 여기의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신 분’이라는 표현이 말해 주듯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다. 이 두 단계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애정 어린 방식으로 돌보시는 일이 있고, 또한 우리 안에서 그분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터를 튼튼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 신성한 생명의 넘치는 공급은 이 모든 신성한 행동 가운데서 다양한 체험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공급된다. (벤전 5:10 각주 2)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모든 과정을 이미 거치시어, 그분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을 그분 자신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으로 이끄실 수 있으시도록, 온전하고 완전한 구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누림이신 삼일 하나님의 풍성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성한 운행의 모든 단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이 그리스도는 바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넘치는 생명 공급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어,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견고한 기초이신 삼일 하나님(벧전 1:1-2) 안에 터를 튼튼하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영광스러운 목표에 이르도록 하신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포함한 구속을 통하여, 그분께서 이루신 모든 성취에 근거한 것이다. ...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터를 튼튼하게 하시는 일은 얼마나 뛰어난가! 이것은 모두 ‘참된 은혜’(벧전 5:12)이신 그분의 ‘모든 은혜’를 통하여 성취된다.(벧전 5:10 각주 3)

이 소망(롬 5:4)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느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끌리리라는 소망이다(2 절). 우리는 은혜 안에 서 있고 평안의 길을 가지만 아직 영광 안에 있지 않다. 그러나 어느 날 ... 우리는 영광 안으로 이끌릴 것이다. ...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표현되실 때 그것이 영광이다. 그것은 전구 속의 전류가 표현되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 전기의 표현은 전기의 영광이다. 우리는 전기 자체를 볼 수 없다. 전기가 불빛으로 빛을 낼 때, 그것이 곧 전기의 표현이요 전기의 영광이다. 이와 같이 영광이란 표현되신 하나님이다.

이 영광이 장차 있을 것인데, 그것과 비교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 절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롬 8:18, 고후 4:17, 살전 2:12, 히 2:10, 벧전 5:10).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장차 올 이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린다. 우리는 그분을 누리면서 장차 올 영광을 소망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이다(롬 5:10). 매일 우리는 많은 부정적인 것들에서 구원받아야 한다. 우리의 성질과 자아에서 구원받아야 한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죄로부터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아야 한다. 즉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으로부터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아야 한다. 즉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존재로부터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아야 한다. 즉 우리의 타고난 생명으로부터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아 모양으로부터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아야 한다. 즉 하나님의 만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개인주의로부터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아야 한다. 즉 다른 이들과 함께 한 몸으로 건축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받는 구원이다. ... 생명 안에 있는 이런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갖는 주된 누림이다. 의롭다 하심은 우리를 누림의 영역으로 이끌었다. 이 영역 안에서 우리는 은혜 안에 서 있고, 평안의 길을 가며, 소망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누린다. 고난을 당하고 누리는 동안 우리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다. 이것이 의롭다 하심의 결과이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9, 150-15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11

6/29 주일

아침의 누림

롬 4:16-18, 20-25

- 16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모든 씨, 곧 율법에 속한 사람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사람에게도 확고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인데,
- 17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세웠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 18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중에 소망을 갖고 믿었으므로, “너의 씨가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 20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의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강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 21 약속하신 그것을 그분께서 또한 이루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 22 그러므로 이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 23 이제 이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 24 의롭다고 여겨질 우리, 곧 예수님 우리 주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 25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넘겨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